

일본기업들의 해외이전 압력과 경쟁국들의 일본기업 유치경쟁

최근 일본내에서는 달러당 76엔대의 엔高와 대지진으로 인한 전력 부족난까지 겹쳐 일본기업들의 해외이전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대만 주요경쟁국들간 일본기업 투자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투자유치전략의 차별화가 필요

- 최근 일본경제산업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렇치 않아도 일본의 입지경쟁력 약화로 산업공동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달러당 76엔대의 엔高와 대지진으로 인한 전력 부족난까지 겹쳐 해외도피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해외이전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기업을 유치하여 자국산업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상황을 일본기업 유치의 호기로 삼고 일본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일본기업들의 해외이전 압력

- 엔高의 영향과 일본기업들의 해외이전
 - 최근 실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제조업 관련)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전체 응답기업의 23%가, 그리고 76엔

대의 엔高가 앞으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46%가 생산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의 해외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재료·부품조달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45%가, 그리고 달러당 76엔대의 엔高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50% 이상이 실시하겠다고 응답
- 중소기업(제조업 관련)의 경우에는 현재시점에서는 13%가, 그리고 엔高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7%가 생산공장이나 개발거점의 해외이전을 실시하겠다고 응답

○ 일본내 입지경쟁력

- 일본의 지방자치체 기업유치담당자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중국 및 한국과 비교하여 일본의 입지경쟁력이 못하다는 평가가 낫다는 평가보다 10배가 많음.
- 일본의 경우 엔高나 높은 법인세율 등 불리한 요소에 비하여 이를 커버해줄 수 있는 유리한 요소는 매우 적다는 평가임.
- 낫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우수한 인재가 있음을 들고 있음. 그러나 이제까지 일본의 강점이었던 인재면에서의 우위성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임.
- 한편, 일본내 홋카이도나 추고쿠 등은 엔高의 영향이 적고 전력 부족난도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등과 더불어 유치 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일본내 토후쿠(東北), 칸토(關東), 큐슈(九州) 등 전력난이 심한 지역일수록 해외로부터 유치 교섭이나 접촉을 받은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한국과 일본 및 주요 경쟁국의 투자환경

○ 경쟁국간 투자 코스트 비교

- JETRO 조사자료에 의하면,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조건에서 한국은 3개국 중 중간 수준임.
- 한국은 무역자유화가 진전돼 있고 항만, 공항 등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어 수출 여건이 양호한 가운데 전기료만 1kW/h당 4.5엔으로 일본을 포함한 4개국 중 가장 싼 편임.
- 반면 24.2%인 법인세는 대만(17%)보다 비싸고, 공단 용지 구입 비용도 1㎡당 2만800엔으로 중국(6,900엔)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음.
- 특히 현장근로자 평균 임금은 9만2,700엔(약 130만원)으로 3개국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2만3,600엔(약 33만원)인 중국에 비하면 4배 이상 비쌈.

○ 최근 투자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국의 일본기업유치 전략

- 최근 외국으로부터 유치교섭을 받았다고 응답한 일본기업들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총 13건중 기타 아시아(4건 :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3건)이 상위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은 1건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총 20건중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타 아시아(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가 5건, 다음으로 한국이 3건임.

< 대만 >

-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대만의 관련당국이 대만의 전력요금이 일본의 1/3인 점 등을 들어 동경과 오오사카의 경영자들을 대상

으로 대만진출교섭을 벌임.

- 일본중소기업 전용공단 정비

- 단지내 일본인 종업원들의 생활지원 체제 정비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일본의 그린산업 관련 기업들이 단지에 입주하여 태양광 발전, 발광다이오드(LED) 등 분야에서 사업전개를 희망
- 법인세 인하(27%→17%)
- 대만-중국간 무역자유화로 관세감면 등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기업이 이를 이용, 대만에 자회사를 설치하여 대만과 함께 중국대륙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확대 가능

< 중국 >

- 장쑤성 단양시에 일본 자동차부품 공업단지를 오는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이미 13개 부품사가 진출을 결정
- 일본내 각 지역을 상대로 기업유치전략 전개

□ 대만의 일본기업 유치 전문조직

- 대만 당국은 올 가을에 일본기업 투자유치 전문조직을 행정원에 설치할 예정임. 최근 대만의 경제부 상무차관이 방일, 일본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새로운 조직은 각료급을 책임자로 하여 투자유치활동과 함께 이미 진출해있는 일본기업들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둬.
- 동 조직의 책임자에는 무임소장관에 해당하는 정무위원이 취임할 예정이며 일본기업과 대만기업간 제휴 등을 지원하고 기진출 일본기업과 대만 지방정부와의 조정업무에 주력할 예정임.

- 대만의 경제부에는 이미 일본담당 부서가 있으며 작년 8월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조직도 행정원에 설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차별화된 일본전문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음. 빠르면 앞으로 1~2개월 후에 동 조직이 발족될 예정
- 투자분야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발광다이오드(LED)등이 일본·대만간 협력이 적었던 만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환경이나 省에너지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기업의 진출이나 대만기업과의 제휴에 기대를 걸고 있음.

□ 시사점

- 최근의 엔高나 대지진재해로 인한 일본의 입지환경 변화는 우리로서는 일본기업유치에 호기임은 틀림없으나 일본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봄.
- 첫째, 하드(hard)한 측면에서 일본의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한편, 소프트(soft)한 측면에서도 일본의 산업계는 일본에 생산을 고집하는 분위기에서 일본에 어떻게 서플라이체인을 균형 있게 일본내에 남겨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고심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메릴린치 일본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일본 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차는 범용품화하고 있어 선진국 시장에서는 품질과 가격면에서 한국기업에게 추월당하고 있고 신흥국시장에서는 마케팅전략에 뒤져 브랜드력이 구미기업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

- 이어 그는 “최근 많은 일본기업들이 처한 이와 같은 샌드위치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에 근접한 곳에 입지하여 비용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토요타자동차가 무리해서 일본내 생산활동을 고집하기 때문에 엔고가 된다고” 까지 말하고 있음.
- 둘째, 최근 일본 민간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지진 재해 이후 검토되고 있는 해외진출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생산거점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일본내 거점의 이전과 함께 둘째, 고부가가치제품의 제조거점 이전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대지진이후 해외고객으로부터의 요망이나 전력부족문제의 대응 차원에서 고부가가치제품 메이커의 해외이전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아직도 여전히 고부가가치제품의 해외이전은 일본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기술유출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함.
- 셋째,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일본기업 유치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첫째, 경쟁국과의 유치경쟁도 중요하지만 일본내 다른 지역에도 경쟁대상이 있음에 주목하고 일본의 지방까지도 우리의 투자유치 경쟁대상에 포함하여 우리 국내 투자환경의 경쟁력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특성화된 일본기업 유치의 특성화 전략임. 즉 우리가 경쟁국이나 일본내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

할 수 있는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전략을 짤 필요가 있음.

- 셋째, 반드시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일본기업 유치를 고집할 필요는 없음. 가능하면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일본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관련산업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만큼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2011.9.8)

日本經濟新聞(2011.5.11)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외, 각종 포털사이트